

祝 發 刊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第四輯

－ 河西 탄신 500주년 특집 －

河西의 道學

업적으로 다시 파악한 河西－尹絲淳

嶺南儒學과 湖南儒學의 두 軸으로서의 退溪와 河西 比較－琴章泰

河西의 天命圖－劉權鐘

河西의 생명철학－金基鉉

河西 金麟厚선생 시대의 환경：소빙기 자연재난－李泰鎭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金守中

河西가 상상의 집 平泉莊을 만든 뜻－李鐘默

河西 김인후의 聖學사상 연구－徐垆遙

河西의 節義

君師 정조가 본 河西 金麟厚－韓永愚

조광조 신원운동을 통해 본 金麟厚의 정치사상－朴賢謀

朝鮮의 經筵政治와 金麟厚－閔賢九

16세기 지성사에서 河西 김인후와 南冥 조식－申炳周

융합사상가로서 河西 金麟厚－金文朝

河西 金麟厚선생은 유교 절대주의였는가－朴常河

河西學의 회고와 전망－白承鍾

河西의 文章

河西 연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金正洙

선비정신으로 본 河西의 文學觀－鄭堯一

金河西의 도학적 詩賦에 대하여－李東歡

河西의 시세계에 대하여－朴茂瑛

16세기 문학연구의 과제와 河西－金興圭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남－鄭炳憲

河西 詩文學의 문학사적 위상－金鎭英

재단법인 河西학술재단

筆巖書院 山仰會報



필암서원 集成館

筆巖書院 山仰會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巖里 377 電話：061-394-0833

發行人：山仰會長 吳仁均 編輯主幹：金梓洙

〈2009년 12월 23일 정기총회〉

人 事 말

본회 부회장 申斗千

白雪이 滿乾坤하여 天下一色이었던 十餘日 동안의 많은 눈으로 보아 來年이 雨水豐年의 徵兆가 역역한 가운데 健康하고 和氣 넘친 모습으로 2009년도 山仰會 定期總會에 參席하시기 위하여 遠近 各地에서 枉臨하신 會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山仰會는 오랜 歷史의 山仰契의 傳統을 繼承하여 2001년 8월에 安晉福 선생을 初代會長으로 出帆한 모임입니다.

山仰會의 目的이 河西先生을 百世의 師宗으로 崇仰하고 筆巖書院을 聖學修鍊의 道場으로 永久保存하고 道學, 節義, 文章을 研究하여 斯道를 繼承發展시킴에 있다고 明示되어 있습니다.

尊敬하는 斯文會員 여러분, 河西先生은 湖南이 낳은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두루 兼備한 東國 18賢의 한 분으로서 文廟에 配享된 偉大한 賢人입니다. 正祖大王은 河西先生을 文廟에 從配하는 敎書를 통하여 “卿은 海東의 濂溪이자 湖南의 孔子이다” 라고 하시면서 “內面에 쌓은 健剛하고 곧고 端正한 品性은 嚴冬雪寒의 松柏이었고, 밖으로 드러난 빛나고 溫和하고 純粹한 姿態는 맑은 물위의 연꽃이었다.”라고 極讚했습니다.

河西先生은 學問의 理氣를 包括 회통한 大心의 哲學者입니다. 排他보다는 包容을, 分析

보다는 회통을 중시하였고, 모든 事物을 같은 生命次元에서 交感했습니다. 河西 선생의 學說을 要約하면 心은 一身萬事의 주재자다, 그러나 心만으로 주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心에 內存한 理를 타야만 주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心을 定立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天地는 父母요 人間은 兄弟며 萬物은 同胞이니 어찌 異物로 對할 수 있겠는가? 오직 純粹情感으로 交流하고 사랑할 뿐이라고 했으며 天地를 받들어 萬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 갔을 때 正反, 是非, 得失, 好惡가 밝게 가려질 것이요 政治도 여기서부터 始作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河西先生은 單純한 性理學者가 아니고 次元이 다른 道通한 道學者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문에 節義의 標本이시며 文章의 巨星이었으니 尤菴선생께서 이르기를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모두 갖춘 河西先生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賢人들의 讚辭는 여기 列舉하기 어렵게 많습니다.

尊敬하는 山仰會員 여러분, 위와같이 훌륭한 선생님이기에 그 훌륭함을 崇奉하기 위하여 山仰會가 組織되었고 또한 오늘 차가운 날씨에도 滿堂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發展을 期하기

爲해서 傳統으로 繼承해온 講會를 통한 선생의 道學思想과 節義의 精神이며 文章등을 研究琢磨하고 山仰會報를 통해 弘報宣揚하고 斯文振作에 邁進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254名會員 모두가 山仰會에 入會하실 때의 初心으로 돌아가 物神兩面으로 誠實한 義務 이행에 倍前의 積極인 協助가 있어야 所期의 目的達成이 可能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훌륭하신 河西 선생의 英靈에 報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會員여러분 자랑스러운 山仰會員으로서 肯志

와 自負心을 갖고 河西선생의 精神文化 暢達에 다시 한 번 覺悟를 새롭게 합시다. 儀式이 끝나면 誠軒 李準泳 監事の 「禮記 儒行篇」의 講義가 있습니다. 많은 보람을 안고 가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의 總會가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高見과 聲援이 있으시기를 付託도 합니다.

끝으로 庚寅年의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會員 여러분의 玉體錦康하시고 家庭에는 항상 吉祥만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인사말로 가름합니다. 感謝합니다. 2009.12.23

마음의 집중, 즉 경은 공부의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보내온 편지를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두는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호흡을 해보기는 하였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음을 의논하고, 마음의 작용과 기능을 의심하면서 마음을 ‘붙잡는 일’과 ‘수습하는 일’이 어렵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붙잡아 두는 법을 익혀서는 오히려 갈수록 마음이 산만하여 안정될 때가 없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정자는 늘 “앉으면서 잊어버린다.”라는 좌망(坐忘), 다시 말해 생각을 없애고 자신과 모든 사물을 잊게 되는 초월의 경지를 경계했습니다. 조금하게 좌망의 경지에 들어가려 하면 도리어 “앉으면서 마음이 달음질 친다.”라고 하는 좌치(坐馳)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자 소계명이 마음이 펼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는 ‘경(敬)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은 한곳에 몰입하여 다른 쪽으로 마음을 쓰

지 않는 공부법입니다. 즉 마음을 집중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사사로운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아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자도 중화를 논하면서 말했습니다. “마음이 펼쳐지기 전에 찾아서는 안 되고, 펼쳐지고 난 뒤에는 조절하려고 해도 안 된다. 평소에는 경으로 마음을 닦고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욕심에 어두워진 거짓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펼쳐지기 전의 마음은 거울같이 맑고 몸은 고요할 것이며, 펼쳐진 후에는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보낸 편지에 적었던 그대의 말을 위의 말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억지로 찾고 조절하려는 의도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는 경으로 마음을 닦아 오랫동안 쌓아서 얻어지는 이치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펼쳐지기 전에 그 작용과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주자가 여자악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退溪 自省錄(함양과 체찰)에서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강연〉

河西 金麟厚 선생의 道學과 節義

金 東 炫(栗谷思想研究院理事長·大老祠儒會院長)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한 찬란한 유교 문화를 지닌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이다. 오늘날 한국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세계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이러한 문화적 토양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유교는 인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자연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인간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요 인간보다 더 존엄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교는 人本주의로서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또한 유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世俗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걱정한다. 佛敎나 道家처럼 세속이 더럽다고 피하거나 숨지 않는다. 오히려 유교는 세속의 중심에 서서 세속적 현안에 대해 주체적으로 활동 한다. 아울러 유교는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보고 윤리도덕이 실현되는 그러한 세계를 이상으로 삼는다. 정치의 도덕화, 경제의 도덕화, 교육의 도덕화 그리고 개인의 도덕화, 가정의 도덕화, 국가의 도덕화, 세계의 도덕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유교이념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항상 정치와 교육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조선조는 유교가 國敎가 되어 나라의 기본이 되고 백성들

의 생활철학이 되었다. 유교를 모르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유교이념이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기도 하였다.

麗末에 성리학이 들어 온 이후 15세기 寒暄堂 金宏弼, 一蠹 鄭汝昌, 靜庵 趙光祖 등 도학자들은 士禍시대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의리를 실현하다 많은 고초를 당하고 희생되기도 했다. 이어 16세기에는 晦齋 李彥迪, 花潭 徐敬德, 退溪 李滉, 河西 金麟厚, 高峰 奇大升, 牛溪 成渾, 栗谷 李珣 등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이 나타나 성리학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탄신 500주년을 맞는 河西 金麟厚(1510~1560) 선생은 16세기 성리학 전성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의 한 분이다. 그는 文廟에 從祀된 ‘東國 18賢’의 한 분으로 道學과 節義 그리고 文章을 두루 갖춘 분으로 존경받아 왔다.

河西는 불행하게도 士禍시대를 살았다. 1519년에 己卯士禍가 일어나고, 1545년에 乙巳士禍가 일어났으니, 그의 생애가 거의 사화시대의 격랑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年譜에 의하면 河西는 10세에 慕齋 金安國을 찾아 뵈고 『小學』을 배웠는데, 金安國은 아우 金正國과 함께 寒暄堂 金宏弼에게 배웠다. 이렇게 볼 때, 河西의 학맥은 鄭夢周 - 吉再 - 金叔

滋 - 金宗直 - 金宏弼 - 金安國의 道學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河西 학문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道學에 있었고 性理學에 있었다 그는 宋代 張橫渠의 『西銘』과 周濂溪의 『太極圖說』을 실로 천번 정도나 정독하였고, 깊은 사색을 뒤풀이한 끝에 「周易觀象篇」을 짓고 「西銘事天圖」를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저술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天命圖」를 그려 性理의 圖式化를 꾀하기도 하였으니 그의 학문적 깊이와 수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河西는 31살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이후 學德을 겸비한 士林으로 살아갔다. 徐敬德, 白仁傑, 成運, 鄭惟吉 등이 進士司榜이었고, 崔演, 宋麟壽, 林亨秀, 閔箕, 李晁은 潮堂의 同輩였다.

34세 때 弘文館 副修撰으로 己卯土禍 때 참화를 입은 士林의 억울함을 中宗임금에게 진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하께서 아직도 간사한 자들이 어진 이들을 모함한 실상을 깨닫지 못하시어 참회하는 마음을 께히 열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천하의 士林들이 모두 己卯의 억울함을 민망히 여기면서도 이제껏 그들의 속마음을 개진하여 己卯人들의 無罪를 분명히 아뢰어, 위로는 전하의 의심을 풀어드리고, 아래로는 지하 혼령들의 忠憤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비들의 기상이 꺾이고 타락한 한 가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비라는 자가 人倫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며, 관직에 있는 자가 教化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그들이 학문은 하려하지 않고 명예만 찾고, 마음은 성찰하지 않고 일거리만 찾아 다니니, 君子들이 이럴진대 하

물며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河西는 朝野의 士林이 己卯의 억울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는데도, 지금에 이르도록 本心을 털어놓고 죄가 아님을 밝혀서, 위로는 전하의 의심하는 一念을 풀어 드리고, 아래로는 저승에서 억울해 하는 忠憤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士氣의 타락을 여기에서도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이처럼 河西는 經筵席上에서 당시 禁忌視되어 오던 문제를 비장한 각오로 과감히 제기하여, 이후 己卯土禍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희생된 士林들의 伸冤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부터 2년만에 趙光祖의 官爵이 회복되었던 것이다.

河西는 34세 때 노부모의 봉양을 빌미로 外職을 자청해 玉果縣監에 부임하였는데, 圭庵 宋麟壽(1487~1547)가 호남관찰사로 부임하자, 同門의 義도 있어 道義之交를 맺고 학문을 講磨하였다.

河西는 世子 때 輔導로 모시던 仁宗이 재위 8개월만에 文定王后의 압박 속에 세상을 떠나자, 벼슬을 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지 않아 仁宗을 위한 節義를 지켜 出處의 의리를 분명히 하였다. 河西는 仁宗이 갑자기 승하하자 놀라서 통곡하며 기절하였다가 깨어났으며, 이로 인해 병을 얻어 玉果縣監마저 사퇴하고 鄉里인 長城으로 물러났다. 이후 일체의 벼슬을 모두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그는 매년 仁宗의 忌日인 7월 1일이 되면 문득 남쪽의 산중에 들어가 종일토록 통곡하기를 평생 한결같이 하여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그의 文集 속에는 仁宗에 대한 忠義와 悲憤을 담은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 후 10년을 두고 조정에서 선생의 덕을 흠

모하여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그의 임종 전날 가족들에게 “乙巳年 이후의 官爵을 기록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河西의 仁宗에 대한 義理的 處身은 이후 栗谷이나 尤庵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 칭송되었다.

河西의 성리학적 식견은 退溪와 高峰의 性理論辨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高峰 奇大升(1527~1572)은 일찍이 河西의 문하를 드나들며 학문적 蘊蓄을 하여 退溪와의 四端七情논쟁에 대한 敎示를 이미 받기도 하였다. 河西의 「墓誌銘」에 의하면 “道에 있어서 일찍이 大意를 깨달아 徐花潭의 學이 頓悟에 흐르는 것을 단점으로 알았고, 李一齋의 混一道器論을 분별해 주었으며, 退溪 李文純公과는 선생께서 일찍이 太學에 함께 유학해 서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 退溪가 四端七情을 理氣로 나누는 논을 펴며 이르러서는 奇高峰이 선생에게 질문해 이를 반박했다고 한다”고 하였다.

또 「年譜」에서는 “때에 高峰이 벼슬길에서 물러나 고향에 있으면서 항상 선생을 찾아 뵙고 의리를 토론했다. 退溪의 四端七情 理氣互發설을 깊이 의심하고서 선생에게 질문했고, 선생은 그를 위해 분석하고 논변하기를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고 정밀하게 했다. 高峰이 선생에게서 얻은 것이 이와 같았으므로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高峰이 退溪와 더불어 四七互發의 잘못을 강론하면서 많이 선생의 뜻을 分辨한 것이 자못 數萬言이나 된다. 세상에 전하는 바 退高四七往復書가 이것이다.”라고 하여, 河西의 성리학적 식견이 얼마나 깊었고 또 그 영향이 얼마나 甚大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河西에 대해 「實錄」에서는 “河西는 술

을 즐기고 시를 좋아하였으며, 마음이 너그러워 남들과 다투지 않았지만, 그의 속 뜻은 실로 예의와 법도를 지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려 하였다.”고 평하였고, 隱峰 安邦俊(1573~1654)은 “河西의 道學과 節義와 文章은 그 누구도 거기에 미칠 수 없다”고 평하였고, 尤庵 宋時烈(1607~1689)도 “우리나라의 많은 인물 가운데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겸비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河西선생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고 평하였다.

또한 正祖는 말하기를, “나는 金河西에 대해서 특별히 敬慕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은 河西 한 사람 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河西는 문장과 시에서도 當代에 따를 자가 없었다. 尤庵은 河西의 詩를 평하여 “맑아도 격하지 않고 간절해도 급박하지 않고, 즐거워도淫蕩에 이르지 않고 근심해도 傷에 이르지 않아서, 모두 性情을 다스리고 道德을 함양한 것이었으며, 그 疏章은 通暢하고 典雅하여 반드시 모두 이치에 맞게 하였으니, 참으로 仁義의 말이었다.”고 하였다.

栗谷은 河西를 周濂溪에 비유하여 ‘清水芙蓉 光風霽月’이라 하였고, 休靜은 楚나라 屈原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河西는 문학에 있어서도 위로는 宋純, 아래로는 鄭澈을 잇게 하는 호남 歌壇의 중추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河西 金麟厚 선생은 조선조 수많은 유학자 가운데에서도 道學과 節義 그리고 문장을 겸비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제 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여 선생이 남긴 道學과 節義의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실천하고 구현하여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이태수(李太守)에게 올린 서한

河西 金麟厚

모월 모일 화민(化民) 고애자(孤哀子) 김인후(金麟厚)는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하며 삼가 성주합하(城主閣下)께 아뢰나이다.

그옥이 듣건대 옛날에 백성의 상(上)이 된 이는 자기 위세가 존엄하지 못할까 걱정하기 앞서 백성이 친하지 아니할까 걱정하였고 민심이 복종하지 않을까 근심하기 앞서 자기가 극진히 못할까를 근심하였으며 민성(民性)이 악에 흐르는 것을 죄 주기 앞서 항상 본원(本源)은 누구나 다 선(善)하다는 데에 생각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감화시키면 감화하지 않을 이치가 없고 사람을 미루어 사람을 다스리면 다스리지 못하는 법이 없으며 영(令)을 하면 반드시 행하게 하고 금(禁)을 하면 반드시 그치게 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되 사랑하고 공경하되 믿게 하여, 날로 선(善)에 옮기고 죄를 멀리하되 스스로 알지 못했으므로 마침내 영(令)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지고 금하지 아니해도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위를 자랑하여 홀로 자존하며 남의 사(詐)를 지레 짐작하여 밝은 척한다면 가까운 자는 아첨하고 속이며, 먼 자는 태만하고 의

심하는 법이니 아첨하고 속이면 넘어가기가 쉬워서 그 그림을 알지 못하고 태만하고 의심하면 이반하기 쉬워서 반드시 거역(拒逆)하기에 이르므로 아래서 죄를 많이 얻게 되고, 위에서 원망을 깊이 사게 되며 스스로 존대하면 세(勢)가 날로 외롭고 스스로 옳다 여기면 악이 날로 쌓이기 마련입니다.

앞드려 생각하면 합하는 청평(淸平)하고 간중(簡重)하며, 근검(勤儉)하고 질직(質直)하며 형위(刑威)를 숭상하지 않고 문치(文治)를 전용하였으니 이웃 고을 정치를 살펴보면 합하 같이 마음 쓰는 이가 없는데 하나는 감사(監司)의 잘못 들음이고 하나는 간세(姦細)한 무리들의 참소로 하여, 명예를 가까이 한다는 기롱이 비록 한 때의 희극(戲劇)에서 나온 것이지만 조금은 불쾌함이 없지 않은즉 봉우(朋友)들에게도 역시 깊이 믿음을 보였다고는 못할 것이니 그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는 정히 합하가 마음을 경동(驚動)하고 성정을 견인(堅忍)케 하여 능하지 못한 것을 능하게 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공부자께서 《역(易)》의 건(蹇)을 상(象)하여 이르기를 『몸에 돌이켜 덕을 닦는다(反身修德).』하였고, 그 전(傳)에 『군자는 어렵고 험함을

만났을 적에는 반드시 자신을 반성하되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되었는가 하여 잘못된 바가 있으면 고치고 마음에 불만족한 점이 없더라도 더욱 힘쓰는 것이니 이 점이 바로 그 덕을 닦는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고하기를 『소인이 너를 원망하고 너를 비난하면 임금 은 스스로 덕을 공경하되 이 허물은 나의 허물이다.』 하여 감히 노기를 머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였으며, 강왕(康王)【목왕(穆王)】은 군아(君牙)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여름철 가뭄 비에도 소민(小民)은 오직 원망하며 겨울철 큰 추위에도 역시 소민은 원망하나니 이것은 그 어려움 때문이다.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그 쉬움을 계획하면 백성이 편안하느니라.』하였으니 오직 합하는 이에 유의하소서.

상(商)나라 남은 백성이 주(紂)의 구악(舊惡)에 물들었으니 어찌 가증함이 없다 하리오만 강숙(康叔)을 위(衛)나라에 봉할 적에 무왕(武王)은 반드시 백성을 『적자(赤子)를 보호하듯』 보호하라 훈계하였으며 전국(戰國) 시대에 인욕(人欲)이 횡류(橫流)하여 다시 인의(仁義)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으니 선속(善俗)이라 할 수 없는 데도 맹자(孟子)는 위후(魏侯)의 물음에 답하되 『반드시 인정(仁政)을 베풀고 형벌(刑罰)을 생략하는 것을 선무로 삼아야 한다.』했으며, 애공(哀公)이 『해가 기년(己年)이어서 용(用)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자, 유약(有若)은 『왜 철(徹) 법을 쓰지 않습니까.』고 대답하고 애공이 또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어서 마침내 말하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홀로 부족할 리 없고,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이 홀로 풍족할 리 없다.』 했습니다.

이 몇 가지 말들은 상정(常情)으로써 관찰하면 오활하고 멀어서 사정과는 너무도 동떨어지다 아니할 자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임금도 가차(假借) 고식(姑息)의 임금이 아니요 아래에 있는 선비도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선비가 아닌데 반드시 이를 들어 말한 것을 보면 어찌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대학(大學)》에 강고(康誥)의 말을 인용하여 풀이한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 성실히 구하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멀지는 않을 것이다.』라 했고, 이에 대해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적자(赤子)가 능히 스스로 제 뜻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어미 된 이의 자애(慈愛)로운 마음이 지성에서 나오면 무릇 그 뜻을 구하는 것이 혹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상거가 크게 서로 멀지는 않을 것이니 어찌 꼭 배움을 기다려야만 가 능하다 하랴. 백성으로 말하면 적자가 스스로 말을 못하는 것과 같지는 않은데 부리는 자가 도리어 그 마음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본시 자애하는 실상이 없음으로 해서 이에 살피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지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설을 미루어 부연한 자 있어 말하기를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는 것같이 하며 관장(官長) 섬기기를 형 섬기는 것같이 하며 동료 돕기를 집안사람 같이 하며 못 서리 대우하기를 노복(奴僕)과 같이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와 같이 하며 관사(官事) 처리하기를 제집 일 같이 한 연후(然後)야 능히 나의 정성을 다한 것이니 만약 털끝이라도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다 내 마음이 미진한 바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극진하지 못하면 물아(物我)가 서로 나타나고 피차가 격리 두절되어 마치 수족의

마비로 인해 기운이 관통하지 못하니 가려움이나 쓰라림이 전혀 감각이 없는 것과 같다. 이리되면 어떻게 만변(萬變)을 수용하며 중심(衆心)을 일치하게 할 수 있으랴.』라 하였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 병을 부른 까닭은 편(偏)과 사(私)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대개 사(私)하면 반드시 편하고 편하면 반드시 사하며 사하면 공(公)하지 못하고 편하면 정(正)하지 못하여, 일념의 가는 것이 그 사이가 터력을 용납 못하지만 일을 해치고 정사를 해치는 단서가 실로 이에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일을 응함에 있어 일호의 사가 매이면 그 본연의 정(正)을 얻지 못하여 능히 일신의 주(主)가 될 수 없고, 몸이 물(物)을 접하는 데도 일호의 편중이 있으면 반드시 당연의 법칙을 잃어서 심지어는 천하의 욕이 되는 것이니 호오(好惡)의 극(極)은 안에서 정해지고 존망(存亡)의 기미는 밖에서 결단되는 지라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하되 반드시 거울 같이 비고 저울대처럼 평평하게 하여 일호라도 편사를 용납하지 아니하면 못 사(弊)가 그 틈을 파고들어 그 기(機)를 맞힐 수 없음과 동시에 일이 그 마땅함을 얻어 백성이 중(中)에 합할 것입니다.

합하는 시험삼아 한가하고 고요한 속에 심기를 평화롭게 가지시고 성현의 언어 집고(集考) 주석을 취하여 침잠하고 반복하여 그 마음 쓴 바를 구하되 안보를 어떻게 하면 적자 같이 하며 벌을 어떻게 하면 덜어지며 기년(饑年)에 어떻게 하면 철(徹)을 당하며 백성 보기를 어떻게 하면 상(傷)한 것 같이 하며 백성 부리기를 어떻게 하면 제사 같이 하며 알면 반드시 좋아하는

데 이르고 좋아하면 반드시 즐거워하는 데 이르며 아첨하는 말에 맞들이지 말고 태만한 백성에게 노하지 말며 차분히 생각하고 살펴서 처하여 시행되지 못할 영과 그치지 않을 금(禁)은 하지 말며 반드시 성현의 마음 쓴 것으로 마음을 삼으면 일용의 사이에 자연 별종의 도리가 없더라도 응접의 즈음에 조용하고 한가하여 반드시 그 당연의 법칙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여 덕으로써 닦으며 자기를 책하면 원망이 절로 풀어지고 태만한 자는 공경을 가지며 의심하던 자는 믿게 되고 갈라진 자는 합하며 거역하던 자는 순하여 감응의 묘(妙)가 장차 멀어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리니 행정상에 대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인후(麟厚)는 몸소 도를 행하지 못하고 가정(家政)도 실패하여 부모와 사환을 능히 보존 못하고 하루아침에 다 흩어졌으니 죄벌(罪罰)의 낡은 목숨이 근심과 병만 더욱 깊어갈 뿐입니다. 비로소 민심의 향배는 대소가 사이 없음을 생각할 제 「범에 상한 자라야 참을 안다.」는 말이 헛말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말을 올리기를 이와 같이 하오니 합하는 어여뻐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소서.

그옥이 보건대 몸 닦는 도와 정사하는 방법은 《논어》, 《맹자》, 《시경》, 《서경》에 갖추어져 있으며 더욱 《논어》보다 간절한 것이 없어 옹용(雍容)하여 박급하지 않고 평실낙이(平實樂易)하며 말은 비록 지극히 가직하나 위아래에 다 통하니 만약 하나하나 이회(理會)하여 마음과 몸으로 체받아 응물(應物)의 본으로 삼으면 성인의 성법(成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 결코 권모(權謨)나 지력(智力) 따위에 비길 바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망극한 속에 바깥일을 언급하는 것은 진실로 때가 아님을 아오나 특히 가르침을 받은 날이 오래 뽀터러 아름다운 정사를 눈으로 보니 미상 불 옛 도로써 더욱 기대를 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감춰두고 있는 소견을 한번도 앞에 진술하지 못한 채, 질병에 얽히어 날로 더해만 가서 갑자기 죽어가면 한갓 회한(悔恨)만 영원히 남기게 될 것이오라 더욱 좌우(左右)에게 급급하는 바이니 절대 타인에 보여 죄와 허물을 가중하게 만들지 마시고 보신 후에 바로 불태워 버리시면 이만 다행이 없겠습니다. 진서산(眞西山)의 《대학연의(大學衍義)》 중에 있는 민정 살피는 한 종류도 또한 마땅히 깊이 완색(玩索)하시압.

上李太守書

月日, 化民孤哀子金麟厚, 誠惶誠恐, 稽顙再拜, 謹言于城主閣下. 竊嘗聞: 古之爲民上者, 不患己勢之不尊, 而患民之不親, 不患民心之不服, 而患己之不盡, 不以民性之流於惡爲可罪, 而恒致念於本源之未嘗不善, 以心感心, 而無不可感之理, 以人治人, 而無不可治之道, 令之使必可行, 禁之使必可止, 有以使民畏而愛之, 敬而信之, 日遷善遠罪而不自知, 以至於不令而行, 不禁而止, 苟或矜高以自尊, 逆詐以爲明, 則近者諂而欺, 遠者慢而疑, 諂而欺, 則易悅而不知其非, 慢而疑, 則易離而必至於逆, 下之獲罪者多, 上之取怨者深, 自以爲尊, 而勢日孤, 自以爲是, 而惡日積矣. 伏惟閣下, 清平簡重, 勤儉質直, 不尚刑威, 專用文治, 察隣邑之政, 無如閣下之用心者, 一則監司之過聽, 一則姦細之號訴, 近名之譏, 雖出於一時之戲劇, 而不能無纖芥之不快, 則於朋友亦

不可爲深見信也. 其所以致此者, 何哉?

此正閣下動心忍性, 增益不能之時也, 夫子象《易》之蹇曰: “反身修德.” 傳曰: “君子之遇艱阻, 必自省於身, 有失而致之乎? 有所未善 則改之, 無歉於心則加勉 乃自修其德也.” 周公之告成王曰: “小人怨汝詈汝, 則皇自敬德厥愆曰朕之愆, 不啻不敢含怒.”

康王之命君牙曰: “夏暑雨, 小民惟曰, 怨咨, 冬祁寒, 小民亦惟曰, 怨咨, 厥惟艱哉! 思其艱 以圖其易, 民乃寧.” 惟閣下留意焉, 商之餘民, 染紂舊惡, 豈爲無可惡者, 而康叔之封於衛, 武王必戒之以如保赤子, 戰國之時, 人欲橫流, 不復知有仁義, 不可爲善俗, 而孟子答魏侯之間, 必以施仁政省刑罰爲先, 哀公以年饑用不足爲憂, 有若對之以盍徹, 又疑其不知而妄對,

則乃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此數說者, 以常情觀之,

其不以爲迂遠, 而濶於事情者鮮矣. 然上焉而非假借姑息之君, 下焉而非曲學阿世之儒, 則其必以是爲言者, 豈無謂與? 《大學》引康誥之言而釋之曰: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程子曰: “赤子未能自言其意, 而爲之母者, 慈愛之心, 出於至誠, 則凡所以求其意者, 雖或不中, 而不至於大相遠矣. 豈待學而能哉? 若民則非如赤子之不能自言, 而使之者, 反不能無失於其心, 則以本無慈愛之心, 而於此有不察爾. 至哉! 言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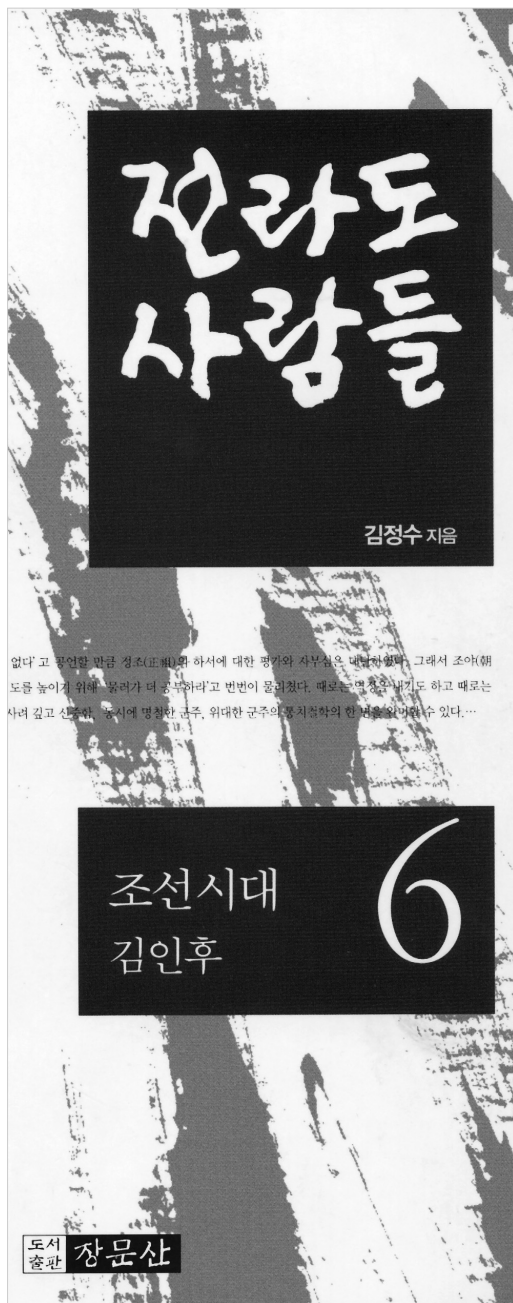
又有推其說者曰: “事君如事親, 事官長如事兄, 與同僚如家人, 待羣吏如奴僕, 愛百姓如妻子, 處官事如家事, 然後能盡吾之誠, 如有毫末不至, 皆吾心有所未盡也.” 吾心之不盡, 則物我相形, 彼此隔絕, 如手足? 痺, 氣不相貫, 痒痾疾痛, 皆不切己, 其何以酬萬變而一衆心哉?

雖然其所以爲是病者，不過曰偏與私而已。蓋私則必偏，偏則必私，私則不公，偏則不正，一念之微，

間不容髮，而害事害政之端，實由於此。何者心之應事，有一毫之私係，則不得其本然之正，而不能爲一身之主，身之接物，有一毫之偏重，則必失其當然之則，而甚至爲天下之僂，好惡之極定於內，而存亡之幾，決於外，可不慎哉！果能常存此心，必使之如鑑之空，如衡之平，不容其有一毫之偏私，則羣邪無以乘其隙而中其機，事得其宜，而民協於中矣。閣下試於清閒靜一之中，平心易氣，取聖賢言語，集考註釋，沈潛反覆，求其所以用心者，保何爲而如子，罰何爲而當省，饑何爲而當徹，以至視何爲而如傷，使何爲而如祭，知而必至於好之，好而必至於樂之，無味於諂言，無怒於慢民，徐思而審處之，不爲不可行之令不可止之禁，必以聖賢之所以用心者爲心，則日用之間，自無別種道理，而應接之際，從容閒暇，必極其當然之則，省身而德以修，責己而怨自釋，慢者敬，疑者信，離者合，逆者順，感應之妙，將無遠之不通，其於爲政乎，何有！麟厚身不行道，家失其政，父母僮使，不能保存，一朝散盡，罪罰殘生，憂疾增深，始念民心向背，小大無間，傷虎知真，益覺非虛，輒敢冒進其說如此，伏惟閣下，矜憐而恕其罪焉。

竊觀修身之道，爲政之方，備具於《語》《孟》《詩》《書》，而尤莫切於《論語》，雍容不迫，平實樂易，言雖至近，上下皆通，若能逐件理會，體之心身，以爲應物之本，則聖人成法，在吾方寸中，而決知其非權謀智力之所可擬議也。罔極之中，言及外事，固非其時，特以承塵日久，目覩美政，未嘗不以古道益加期望，今若閉蓄私見，不以一陳於前，疾病纏沈，羸乏日甚，恐奄忽不可爲諱，徒悔恨於無窮，尤所以汲汲於左右，切勿傳

示他人，以重罪戾，下眼之後，卽付灰燼，不勝幸甚。○眞西山《大學衍義》書中察民情一類，亦當深玩。



「上李太守書」·「誅沙門論」의 현대적 의의

金正洙(전 올김대종회장)

序

고전이란 단순히 옛 책이나 옛 글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쓰여졌으나 그것이 바로 현재에 되살려져 현재의 생활에 유익하고 유용한 가치를 가질 때 고전이라 불리는 것이다.

『하서선생전집』에 현존하는 글들은 詩 賦 辭 記 書 跋...가릴 것 없이 또 장단에 관계없이 당시 人口에 膾炙되며 일세를 풍미한 명작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명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도 우리의 정서 사고와 軌를 같이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살아 있는 교과서이며 인문 도덕 상 불변의 규범이다.

여기에다 하서 선생의 글이 錦上添花 격으로 좋은 것은 僻字가 거의 없고 辭氣가 부드러우며 비교적 평이하고 簡明하여 현대인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음이다. 그러나 담겨 있는 내용은 우주의 森羅萬象으로부터 天理와 인간 性靑의 幾微에 이르기까지 深奧 精緻하여 熟讀玩味해야 眞境에 이를 수 있다. 글마다 옛 문장의 典範이다. 이 小論에서는 論者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듯이 보이는 두 편의 글, 「상이태수서」와 「주사문론」을 들어 현대적인 의의와 가치를 찾아 보고자 한다.

제 1절 상이태수서

「상이태수서」는 지방 守令에게 보낸 서한이다. 시기는 첫머리에 ‘孤哀子’라 된 것으로 보아 명종 4년(1549)의 外艱에 이어 명종 6년의 內艱을 당하여 喪期를 마친 뒤인 명종 8년 후반~9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태수가 누구인지 또 어느 고을 태수인지 상고할 수 없다. 어쩌면 실재하는 ‘이태수’에게 보낸 글인지, 또는 이태수라는 허구의 인물을 假托하여 쓴 글인지 알 길이 없다. 글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 한 수령에게 쓴 편지라기보다 오히려 국왕을 상대한 상소문이라고 해야 어울린다. 「상이태수서」의 ‘이태수’를 ‘전하’로 바꾸면 그대로 국왕 앞의 상소문이 될 글이다. 전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국왕의 마음가짐이요 치국의 大要이며 강령이다. 홍문관 부수찬 때 올린 弘文館箚子와 기묘사화 신원 부분만 없을 뿐 기본 이념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민심 존중과 자존 독선 경계

「상이태수서」는 총체적으로 말하여 짧은 글이나 王道 至治의 眞髓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정치철학은 그대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론에 비추어 조금도 손색이 없다. 민주주의가 별 것인가. 위정자가 바르고 옳은 마음을 지니고 私心없이 국민을 존중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국민은 하늘로부터 받은 本性을 지키며 착하고 바르게 공동체를 우선하고 배려하는 삶을 영위하면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한 편의 글은 용어만 다를 뿐 오늘날의 민주주의론에 꼭 부합되는 내용이다.

옛날의 이상정치는 爲民 保民 民本 愛民의 왕도요, 仁義의 정치인데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바로 오늘날의 민주정치와 별로 다르지 않다. 하서 선생은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데 먼저 위정자(왕 또는 백관)의 마음가짐의 중요성부터 짚었다. 위정자는 백성 편에서 백성 속으로 들어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붙드는 일이 첫걸음임을 강조한다.

예로부터 백성의 上(곧 왕)이 되는 자는 첫째로 자신의 위엄보다 먼저 백성이 자기와 친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였습시다. 둘째로 민심을 복종시키는 일보다 자기가 백성에게 극진히 하지 못할까 봐 근심하였습시다. 셋째로 민심이 악에 흐르는 것을 별하기보다 本性이 선하다는 믿음을 끝까지 바꿈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미루어 남(백성)의 마음을 감화시키면 감화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사람의 도리로써 사람을 다스리면 다스리지 못할 일이 없습시다.

여기에서 실은 태수라기보다는 왕의 마음가짐을 일깨웠다. 『大學』의 주요 명제인 ‘推己及人’과 ‘潔矩之道’ 및 『中庸』의 ‘以人治人’의 도와 性善에 대한 신뢰를 역설한 것이다. 다음엔 在位者에 대한 간절한 경계가 이어진다. 이 재위자에 대한 경계는 곧 오늘날의 위

대통령으로부터 아래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가 빠지기 쉬운 독선과 自尊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지위를 믿고 홀로 자존하여 아랫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지레 짐작하며 밝은 체한다면 가까운 자는 아첨하고 속이며 먼 자는 태만하고 의심하는 법입니다. 아첨하고 속이면 그릇을 알지 못하고, 태만하고 의심하면 거역하게 되므로 결국 아래에서 죄를 많이 짓고 위에서는 원망을 깊이 샅니다. 이러므로 자존하면 세가 날로 외로워지고 독선하면 악이 날로 쌓이게 마련입니다.

‘내 탓이오’

백성의 위(上, 오늘날의 위정자)에 있는 자는 나라나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의 탓을 말고 ‘내 탓이오’ 하고 나서야 한다. 즉 ‘反求諸身’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직자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얼마나 남의 탓하기에 汲及한가. 반성하고 자기를 책하는 정신이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절실한 덕목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하서 선생은 易에 나오는 傳을 인용하여 절절히 호소한다.

공부자께서 ‘몸에 돌이켜 덕을 닦는다(反身修德)’ 하였고 그 傳에 ‘군자는 험난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반성하여 잘못이 있으면 고치며, 마음에 불만족스러움이 없더라도 더욱 힘써 덕을 닦는 것이다’ 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反求諸身’과 관련하여 반드시 되짚어 볼 말이 ‘修己治人’이다. 군자 곧 위정자는 남을 다스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부터 수양하여 덕을 닦은 뒤에 공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직자 중에 수

양의 부족과 인격상 결함으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민주국가의 공직자에게 ‘반구자신 과 ‘수기치인’의 덕목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如保赤子

민주정치의 요체가 무엇인가? 400여년 전 군주정치 체제하에서 애민 보민 위민의 도를 諄諄히 풀이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오늘날 민주정치의 본령을 찾을 수 있다.

무왕은 백성 보호를 ‘어린애 보호하듯(如保赤子)’ 하라 하였으며, 맹자는 仁政을 베풀어 형벌을 줄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論語』에서 10분의 1 稅를 주장하였습니다.

대학에 ‘마음으로 성실히 구하면 비록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멀지는 않을 것이다(心誠求之雖不中不遠矣)’라 했고, 이에 대하여 程子是 ‘어린애가 능히 스스로 제 뜻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어미된 이의 자애로운 마음이 지성에서 나오면 찾아낸 뜻이 혹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별로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 꼭 배움을 기다려야만 가능하랴 하랴. 백성은 어린애가 스스로 말을 못하는 것과 다르다. 부리는 자가 그 마음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본래 자애하는 성의가 없기 때문에 살피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정을 살피는 데는 백성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 곧 애민의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민주정치에서 民心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민심을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함을 설파한 대목이다.

위정자가 마음 쓸 일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어린애같이 보호하며, 벌을 덜며, 흉년에 감세해 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상한 백성 보기를 내 몸 상한 듯하며, 백성 부리기를 제사 받들듯 삼가고 조심할 것인가? 어찌하면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좋아하며, 좋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경지에 이르게 할 것인가? 경제할 일은 아침의 말에 맞들이지 말고 태만한 백성에게 노하지 말며, 차분히 생각하고 살펴서 시행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속과 금법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현의 마음씀으로 내 마음을 삼으면 특단의 도리가 없더라도 당연의 법칙을 다할 것입니다.

위정자의 마음씀이다. 오늘날 국민의 공복이라 하는 민주국가의 공직자가 마땅히 본받고 명심해야 될 마음의 덕이 아닌가.

제 2절 「誅沙門論」

중국 남북조 시대(420~589) 북조의 北魏 太武帝가 중화주의자인 漢人 崔浩를 재상으로 등용하여 최후의 헌책으로 太平眞君 7년(446)에 蓋吳의 반란에 연루시켜 長安의 모든 절과 불상을 불태우고 승려를 대학살(전멸)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 역사상 유명한 소위 ‘三武一宗’의 法難 중의 하나다. 태무제는 도교 신봉자였다.

人道主義

이 무자비한 승려 학살을 중국 역사의 갈피에서 꺼내어 준엄하고 통쾌한 筆誅를 가한 글이 이 「주사문론」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하서 선생의 事象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역사에 대한 정확한 비판력을 볼 수 있으며, 서구의 휴머니즘을 압도하는 인간 생명·인권 존중의 人道主義 사상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渴求되는 관용 포용 통합의 리더십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을 400여 년 전에 이미 啓示하여 지금의 안목으로 보아도 한 자 한 확인들 수정할 필요가 없는 글이다. 하서 선생은 정통 유학자로서 排佛을 견지하였으나 근 40명의 승려들과 폭 넓은 교유를 하였고 시를 다수 주고받으며 가끔 山寺를 찾아 머물렀다. 그럼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귀이었고 교리 면에서는 불교를 이단이라 하여 확고하고 엄연한 선을 굽게 그었다.

하서 선생 생애 중 시를 주고받은 승려를 문집에서 대충 살펴보아도 35명에 이른다. 그리고 그들과의 교분도 두터웠던 듯하다. 西山大師 休靜은 10년 연하인데 생전의 교유 여하는 알 수 없으나 그의 「拜河西先生墓」라는 五言絶句가 전해진다. 가사 입은 승려가 묘를 찾을 정도였으니 승려들과의 관계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慟哭辭金闕 통곡하며 대궐을 하직하노라니
天邊白日沈 서녘 하늘가에 해가 잠기더라오
誰知三尺土 누가 알리 석 자 흙무덤 속에
埋却屈原心 굴원의 충혼이 묻혀 있는 줄을

그러나 하서 선생은 승려에게 주는 시에서 불교를 불용하는 뜻을 결연하게 천명한다. 「題敬峯上人卷端」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전략)

吾道無而有 우리 도는 무에서 유를 낳는데
汝教無而無 그대 교는 무에서 무로 끝나지
絶倫而滅性 인륜을 끊고 본성을 없애니
灰死而木枯 말라죽은 나무에 죽은 재라
問此何道理 묻노니 이게 무슨 도리란 말가
未免私一軀 제 몸 하나 생각하는 욕심일 뿐

(전략)

「見寒山詩有感」도 斥佛詩다.
天堂與地獄 천당이라 지옥이라 함은
指名皆假設 모두 이름 지어 가설한 것
氣盡理亦盡 기 다하면 이도 없어지는데
何有輪廻說 윤회란 말 어디 있을쑤는가

통합의 리더십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는 것과 불교도에 대한 인간애는 별개 문제다. 불교도라 할지라도 종파를 떠나 仁 사상과 生生하는 천리의 덕과 생명 존중의 천리에 의거하여, 수 천 수 만의 인명을 살육한 태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비록 천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범죄자를 역사의 법정에 끌어내어 준엄하게 논고하였다.

魏君의 학살에 대하여 후세에 더러 그의 剛正과 不惑을 통쾌히 여기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가 결코 강정 불혹한 자는 아니었다. 혹 강과 불혹은 인정할 수 있더라도 正은 절대로 아니다. 정은 中의 體인데 승려를 닥치는 대로 죽인 것은 中을 잃은 것이니 正이 될 수 없다. 머리 깎고 검은 장삼 입고 산 속에 들어가 사는 자도 똑같은 天民이어늘 어찌 일반 사람과 다름이 있겠는가. 같은 천민이니 허망한 이단에 빠져 깨닫

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측은히 여겨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구원은 커녕 살육한다면 그들은 깨달음을 얻을 곳이 없을 것이며 그 원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그를 중을 얻어 正을 잃지 않은 자라 할 수 있으랴.

태무제의 반 인륜적인 범죄는 용서할 수 없다. 배불의 입장이지만 생명 존중과 인간애로 불교도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인도주의와 통합의 정신은 바로 현대 우리 사회에 절실한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인의예지의 본성을 지닌 착한 백성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결국은 군주의 책임이니 먼저 왕부터 ‘反求諸身’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이 사람을 냄에 인의예지의 性을 주고 교화의 책임을 군주에게 맡겼다. 군주가 몸소 행하여 익히고 터득하고 체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보고 느낀서 흥기하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도를 밝히지 못하고 아래에서 가르침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과 어지러운 邪說이 다스림에 병통이 되고 백성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백성은 우리 백성이다. 그 중에 무식한 무리들이 우리 유교를 모르고 이단에 넘어가 오랑캐와 금수에 빠져드는 일이 있다면 임금된 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내가 躬行하는 실적이 없고 마음으로 터득한 공부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 마음에 본받을 바가 없어 성인의 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성한다면 그들을 책하여 형벌로 죽일 까닭이 있겠는가.

傳에 있지 않은가. ‘죄 없는 한 사람만 죽여도 이는 왕자의 일이 아니다.’ 先王은 사람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과 사람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 행하였다.

위에 인용한 글들은 왕을 위정자로 백성을 국민으로 바꾸어 읽으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정치의 지침이 된다. 서양류의 천부인권이 아니라 천부인성을 신봉하고 천지자연의 生生之德을 따라 생명을 존중하여 죄 없는 사람을 단 하나라도 죽이면 안된다. 위에 있는 자는 항상 낮은 자세로 조심하고 삼가며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여, 국민의 죄를 묻기에 앞서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하고 책임지며 덕을 닦아야 한다. 짧은 小論이지만 字句마다 이런 뜻들이 淋漓하고 있는 것이다.

結

이상은 『하서선생전집』에서 두 편의 小論을 뽑아 하서 선생 사상의 一端을 들어 현재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본디 훌륭한 학문이나 사상은 時空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생명력을 지니는 것이다. 곧 시대 따라 지역 따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광명이 되어 진로를 밝혀주는 것이다. 『하서선생전집』에 수록되어 전하는 방대한 양의 詩文들을 하나하나 숙독완미하며 想을 가다듬어 窮究한다면 기왕의 학문 사상을 더욱 精深하게 祖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현대의 사상 조류와의 접목을 시도하여 참신한 체계로 止揚시킬 수 없을까, 홀로 가만히 생각해 보곤 한다.

시 한 수, 書 한 편에도 그런 단서는 넉넉하게 들어 있다. 위 두 편의 분석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뜻 있는 이들의 공감과 興起를 丁寧히 바란다.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한국국학진흥원장,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1. 들어가면서

오늘 필암서원에서 여러분을 뵈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선비문화수련원의 도산서원과 이곳 필암서원은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신 하서 선생과 도산서원의 퇴계 선생은 성균관을 함께 다닌 동방생으로 퇴계가 하서보다 아홉 살 위였으나 나이를 넘어 아름다운 사귀를 나누었고, 그러한 사귀를 통해 하서는 퇴계를 “선생은 영남의 빼어난 인물이며 이백, 두보의 무장력에 왕희지, 조맹부의 필력을 지녔다”고 칭송했고, 퇴계는 “성균관에서 교유할 만한 사람은 하서뿐이다”고 평가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분은 사후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을 뿐 아니라, 정조대에서는 임금이 두분의 행적을 기려 친히 도산서원과 필암서원에 제사를 내려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서원은 그러한 중요성으로 전국에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될 때에도 함께 존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생각하면 도산서원과 필암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의 저와 필암서원의 여

러분은 가장 가까운 벗이자 동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사회의 현실과 우리 동지의 임무

친한 벗이자 뜻을 같이 하는 우리는 예전 하서선생과 퇴계 선생 두분이 그랬듯 힘을 합쳐 이 시대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의 수행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적 존경을 받게 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큰 성취를 이루어내어,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중진국 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단계에 가까이 왔고, 그 결과 이제 우리사회는 물질

적인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성취로 내세우는 지난 수십년 간의 압축 성장은 동시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윤리와 가치관은 붕괴된 반면,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은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합리성이 크게 결여되고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합리성의 문제를 넘어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사회의 당면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취를 통한 물질적 토대의 확보와 함께 그에 걸맞은 정신문화와 가치의 제고가 시급합니다.

정신문화와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각과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각과 변화의 방향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공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넓게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갖추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정신문화와 가치의 제고라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선도할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전통시대에 그러한 사회적 역할에 자신을 헌신했던 옛 선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오늘날 선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퇴계선생과 하서선생이 품었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 그 길을 걸어가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선비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퇴계와 하서선생이 그러했듯 위기지학의 자기 수양을 통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우리의 주장과 실천이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물질적 욕망이 횡행하는 사회를 향해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과 그러한 가치를 추구한 선비정신의 의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선비정신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수련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산서원과 필암서원은 각각 영남과 호남의 중심 서원으로서 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학당을 설립해 그러한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3. 선비정신의 확산을 위한 사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역할과 성과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지혜와 고민을 공유하고 우리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 행사를 끝낸 1개월 후인 2001년 11월 인성함양과 도덕사회의 구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퇴계선생 탄신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당시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삶의 조건은 크게 나아진 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 의식 있는 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

다. 도산서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선비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할 사회윤리 실천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원은 전통적으로 선비를 기르는 교육(養士)과 옛 성현을 기리고 받드는 尊賢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던 곳인데, 도산서원의 이러한 결정은 서원의 교육기능 가운데 일부인 도덕윤리 교육(德育)을 회복하려는 염원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2001년 설립당시 재원은 퇴계 문중에서 기부한 1억 원이 종자돈이 되었고, 그 이듬해부터 수련이 시작되면서 수련에 소요되는 강연료, 중식비 등 직접 경비는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원의 운영경비와 시설확보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에서는 입교식, 알묘례 등 전통체험 행사만 치르고, 주된 수련과 숙식은 인근의 2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박시설에서 주로 해결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수련생이 늘어나면서 국학진흥원 연수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운영을 맡고 있는 원장이하 임직원들은 여직원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공직 등 사회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분들인데, 전적으로 선비정신의 시대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이 일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되어 왔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수련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수련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지표는 연도별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는 수련생의 숫자입니다. 2002년 수련을 실시한 이후 초기 3년간은 매년 몇 백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5년부터는 매년 약 천 명씩 증가하다 2008년도에는 54차례에 걸쳐 3,912명, 2009년도에는 124차례에 걸쳐 6,242명이 선비수련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련에 참여하는 직종과 계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세 교육의 당사자들이 대부분이고, 인근 지역의 공직자, 군인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과 단체가 일부 참여하는 정도였지만, 2009년부터는 공·사 기업의 신입사원과 임직원, 창업 2세 등의 수련참여가 36회에 걸쳐 1,300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직장인들의 수련이 크게 증가하여 5월말 현재 작년의 10개팀에 비해 3배가 늘어난 30개의 직장인 수련팀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KT, IBK, 코리안리, 삼성중공업의 신입사원과 KB, 한국주택금융공사, 남부발전, 기상청, 특허청의 간부직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련참여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수련을 통한 개인의 발전적 변화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한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수련참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동종 업계나 조직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년간 수련생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년간 조사한 수련만족도 결과를 보면, 교육내용, 강의내용·수준·방법, 선비문화 관련 유용한 경험과 기회부여, 현장

교육에 대한 예상 기여도 등의 전체 항목에 걸쳐 최소 87%에서 최고 97%에 이르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 참여자들은 수련요원의 자세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직에서 은퇴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임직원들이 전용 연수공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연수생들을 오직 사명감 하나로 열의를 가지고 응접하고 있는데, 수련 참여자들은 이들의 사명감과 열성에 감명 받은 것입니다.

수련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고리타분하고 영식적이라는 유교에 대한 오해 속에 큰 기대 없이 찾아 왔다가 새롭게 눈과 귀가 열리고 의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수련과정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으로부터 겸손과 효,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의무 등 많은 것을 배우고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비문화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 과정에서 확인된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이 수련 이후 실제 생활에 복귀한 다음 지속되어 수련에 참여했던 한 개인을 바꾸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선비수련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수련의 경험이 자신의 인성 함양과 조직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리아나 신입사원들의 경우 상사와 선배들에 대한 공경스러운 태도로 “올해

신입사원은 다르다”는 칭찬을 받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도 매너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의 메일을 종종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큐젠의 경우, 사원들이 3월에 연수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이후 4월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 수련원 관계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의 이런 변화에 큰 보람을 느끼며 더욱 교육에 정성을 들일 것을 다짐하고, 나이 어린 학생과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연세 지극한 사회인들 모두에게 선비체험을 통해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4. 선비체험을 하며 갖게 되는 생각

1. 오늘날에도 필요한 선비정신

9년에 걸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운영을 통해 우리는 선비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정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사대부 중에서 유학적 가르침을 자신의 일생의 지향으로 삼아 글과 도덕을 갖추고 의리와 범절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선비는 공자의 仁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忠恕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忠이란 그 글자를 이루는 中과 心이 말하듯 그 마음을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아니면 사랑이든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그것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뉘란 그 글자를 이루는 如와 心이 말하듯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끼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고 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양보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하는 '先憂後樂'의 실천이 가능해 집니다.

옛 선비들은 이러한 충서의 실천을 통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며 존경하는 전통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비정신은 지나간 과거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그 후손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퇴계선생 주손과 육사선생 따님과과의 만남이 가장 큰 감동의 자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퇴계선생의 16대 주손인 이근필 선생은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실천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80연세에도 수련생들을 큰절로 맞이하고 시종일관 무릎을 꿇은 채 대화하는데, 으레 할법한 집안 자량은 전혀 없이 오히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수련생들은 여기서 겸손한 대인관계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이근필선생은 손수 쓴 '남을 칭찬함으로써 복을 만든다(譽人造福)'는 글귀를 선물하며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젊은이들을 격려하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선물하는 글귀의 수량이 연간 15,000장을 넘는다고 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

서 수련생들은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작년 말 101세로 세상을 떠난 부친을 여의고 상중에 있는 이근필 선생은 만남의 끝 무렵 자신의 못다 한 효도를 이야기하면서 효자가 애국자라며 효행의 실천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근필 선생은 작년 퇴계선생의 15대 종손인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유림장을 고사하고 가족장을 치른 바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내리는 유장을 받지 말고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퇴계선생의 뜻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방문하게 되는 이육사문학관에서는 육사선생의 따님이 70연세에도 새색시처럼 나지막한 음성과 공경스런 태도로 세 살 때 여원 선친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의 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들은 바로 옛 선비의 후예들입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 정성스럽고 겸손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존경받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 우리의 옛 교육

우리 선인들은 선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먼저 지식의 습득과 확장에 앞서 사람을 만들고자 어릴 때부터 인성공부를 우선해서 가르쳤습니다. 자고난 이부자리를 스스로 개고 어른의 부르심에는 즉각 대답하고 쫓아가 가르침을 받았으며, 손님이 오면 공손히 맞이하여 자리에 모시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예절부터 가르침을 받고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학문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 때 배우는 것도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사서삼경 등이 모두 자기의 인격수양과 남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요즈음의 성적 우선의 자녀교육과는 출발부터 판이했던 것입니다.

선비들은 특히 爲己之學을 중시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치열하게 갈고 닦는 修己를 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이웃과 백성을 감화시키는 治人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선비정신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그 많은 나라들이 시도해 오고 있으나 선진국 진입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이나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100년 넘게 새로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없고 오히려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 몇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그에 걸맞는 정신문화를 지녀야 하며 그것은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전반에 걸쳐 법, 제도, 관행, 의식 상의 합리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개인의 능력과 경쟁을 중시하면서도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고, 자신들의 오랜 역사 전통

속에서 형성된 지도층의 책임의식과 이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공동체 유지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봉건시대 지배계층에서 생겨난 기사도 정신이 시민사회로 이행되면서 상류사회의 책임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자나 귀족가문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군에 입대하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간 전투에 몰래 참전하였던 영국 왕자의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앞장서 싸우겠다고 답변한 우리나라 청소년이 10%에 불과한 사실이나 우리 지도층 자제들의 병역기피 사례들과 대조가 됩니다.

미국은 서부 개척자들의 프런티어 정신을 독특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모험정신과 노력을 통해 자기 것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정신은 현대에 와서는 벤처기업의 형태로 등장해 실력이 있는 자는 상대를 누르고 가능한 많이 획득하고 이익을 최대한 챙깁니다.

또한 미국은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므로 개인적인 인생관이 삶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취한 후 그 성취를 사회와 공유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갑부는 예외 없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떠나는데, 록펠러와 카네기가 그랬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주군에게 충성하고 명예롭게 죽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무라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은 철저한 공동체 우선의 사회입니다.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도 이러한 정신은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어 일본이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한 정신은 현대사회에서는 회사조직에서 나타나서, 개인의 욕망이나 이해보다는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보람으로 여기는 일본회사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의 일본을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4) 선진 일본의 토대가 된 선비정신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가치관은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조선유학, 특히 퇴계의 敬事상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다수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임진왜란 전까지 일본에는 의리에 따라 주군에 충성하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무라이 정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힘으로 쟁패하는 사무라이만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본사회에 임란 이후 퇴계학이 전해지면서 일본인의 정신과 일본사회가 교화되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계 사후 30년이 흘러 임진왜란 종전을 앞둔 1597년, 30세의 젊은 수는 강항은 포로가 되어 일본에 맨몸으로 끌려갔는데, 그의 학문적 능력은 당시 일본 최고의 지식인이며 승려인 6년 연상의 후지하라 세이카를 감복시키게 됩니다. 그는 강항이 퇴계의 영향을 받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승복을 벗어던지고 퇴계가 입었다는 유복(深衣)을 지어입고 퇴계학의 신봉자가 되었으며, 새로 출범한 도쿠가와 막부의 스승이 되어 막부가 문치로 흐르는 단초를 열어놓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하야시 라잔, 아마자키 안자이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퇴계에 대한 연구와 존숭은 더욱 굳어지면서 퇴계 사상은 도쿠가와 시대 일본인들의 일상생활 사소한 언행에까지 구석구석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국민교육칙어에 반영되어 일본인의 의식과 생활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계사상에서 기인한 일본인의 일상적 삶의 특징적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계의 敬과 誠의 일상화와 산업화입니다. 일본인들이 친절과 예의 그리고 규율을 잘 지키고 헤어질 때 세 번 이상 절하는 것 등은 敬의 습관이 체질화된 생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誠의 생활화와 산업화의 결과입니다.

둘째, 폐 안 끼치는 태도입니다. 일본인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도덕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집 밖에 나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생 폐 끼치지 않는 원칙을 사생활과 공직생활에서 지켰고 또 가르쳤던 분이 퇴계선생입니다.

셋째, 예의바른 사양하기와 반기입니다. 일본인들은 자기집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차나 음식을 대접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위해 음식물을 돌려 보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퇴계선생의 辭受法과 같습니다.

넷째, 일본인의 문장작법은 퇴계로부터 받은 영향이 크다고 일본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퇴계의 靜坐法이 일본인의 생활습관이 되었다, 일본인은 꿇어앉아 ‘八’ 자형으로 손을 짚고 절을 하는데, 안동 지방과 퇴계학 영향권에서는 모두 이와 같이 절을 합니다. 퇴계의 예법 원형이 일본에서 그대로 지켜져서 잘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과 경의 일상화, 공사 간 폐안끼치기, 예절과 물품 사수, 심지어 문장작법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의 국민성과 생활문화의 특징은 조선의 대표적인 선비인 퇴계의 실행 유학을 생활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낭패한 것을 일본은 지키고 이어와 경제적으로 부와 윤희도덕 생활을 함께 누리는 바탕이 되었음을 깊이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 선비들과 동일한 문화적DNA를 물려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옛 선비들의 정신을 잘 익혀 이 시대에 맞는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와 올바른 가치관을 모두 갖춰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선비정신

선비정신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시대의 문제와 위기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소중한 정신과 가치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국가였습니다. 고을마다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 주는 존경받는 선비가 있어 스스로 몸을 닦고 술선수범하였기에 백성들이 교화되어 따랐습니다. 나라 전체의 관점

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큰 선비가 있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지도층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조선은 이처럼 추앙받는 선비가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그들의 나라 조선을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목표는 최고 통치자인 국왕을 유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성군으로 만드는 노력으로 나타났고, 하루 수차례나 열었던 경연은 신하가 국왕에게 유교적 가치와 이상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또 그들은 유교적 이상사회의 건립과 시작을 향촌에서 열어가기 위해 권선징악을 내용으로 하는 향약을 실시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도 교화시켜 이상사회를 향한 길에 동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비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나 맞서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도망친 관군과 달리 여기저기서 글 읽던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려고 했는데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조헌 같은 의병장은 모두 뛰어난 선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비정신은 조선말기 외세침략과 국권상실 시기에도 변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외세가 밀려오던 시기 의병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고, 역부족으로 국권을 상실하자 자결순국하는 절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 만주등지로 고향의 길을 떠났습니다. 유학이 발달하였던 안동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동독립기념관 정문

앞 비석에 1,000명 남짓한 이 지역 독립운동 참가자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이 가운데 326명이 국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독립유공자가 11,000여명이니 시군별 평균은 30명 내외가 될 것인데, 안동지역의 국가독립유공자는 전국평균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안동지역의 독립유공자는 대부분이 선비이고 유가의 후예들입니다. 호남의 의병과 독립투쟁의 위업역시 기호학과 의 뛰어난 유학자들의 문하에서 배출된 선비들이 이룬 것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꼽는 안중근 의사의 역시 선비정신의 실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천주교도였지만, 옥중 유필인 ‘見利思義 見危授命’에 깃든 뜻에서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실천과 희생이 선비정신의 핵심과 닮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과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선비들은 영남에서 호남에서 배운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지닌 선비정신이 불의를 못 본체할 수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비정신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고 또 종교를 초월해 우리 한국사회에 관철되어온 소중한 정신이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선비정신 계승의 올바른 방향

오늘날 우리는 정작 자신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

습니다. 후자는 우리 역사는 좌절과 치욕으로 얼룩진 역사이며, 그래서 잊고 싶은 역사요, 버려야 할 고리타분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세기 동안 우리 역사를 이끌어 온 선비와 그들의 정신도 같은 맥락에서 인식되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역사와 전통문화를 비하하게 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략 과정에서 그들이 굴레를 씌운 식민사관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 사회와 조선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당쟁으로 날을 세우고 중국을 상전처럼 사대주의로 섬기면서 보호하지 않을 수 없어 합병하였다고 둘러대면서 조선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비에 대한 평가도 예외가 아니어서, 선비를 공리공담과 사색당쟁으로 나라를 망치게 한 무능라고 파렴치한 존재들로 왜곡 폄하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해방 후 물밀듯이 밀려온 외래문물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은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전통문화가 나라 발전에 걸림돌로 여겨져 제거와 배척대상이 되어 갔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는 물질만능의 사조로 우리를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리보다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면서 청빈하게 살아간 선비들의 정신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고리타분한 정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록문자의 큰 변화도 선비정신의 가치에 대한 자각을 소홀하게 하는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선비들의 삶과 사상은 한문으로 쓰여 있어 못 읽게 되니 뜻도 모르고 알릴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선비정신 혹은 선비문화 가운데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의 안목으로 누가 보아도 긍정할 수 있는 선비정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고, 옳은 것은 이어받아 적극 활용하고 옳지 못한 것은 버리려야 할때입니다.

오늘날 본받아야 할 선비가 남긴 긍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바른 마음과 몸가짐입니다. 선비들은 의롭지 못한 부귀를 탐내지 않고 불의에는 목숨을 걸고 항거하였으며, 예의와 염치를 소중히 여기고 청렴을 숭상하였습니다.

둘째, 공문을 주도한 선비의 기개입니다. 선비들은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나 초야에 있거나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려는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셋째, 고결한 인격자가 되려고 일생동안 학문을 익히고 세상을 위해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선비들은 치열하게 공부한 다음 배운 것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벼슬도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아가고 감당할 수 없거나 뜻을 관철할 수 없으면 물러나는 것을 당연시 했습니다.

넷째, 국가가 어려울 때를 만나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용기입니다. 임진왜란 때나 구한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을 일으킨 인사는 거의 명망 있는 선비였습니다.

선비들이 남긴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

은 것입니다.

첫째, 신분차별을 당연시 한 것입니다. 선비들은 유교의 치자와 피치자 구분의 영향으로 양인과 천인, 적서의 신분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이었습니다.

둘째, 학문만을 중시하고 무를 낮추어 보아 결과적으로 국력의 약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셋째, 사민의 구분에 따라 농·공·상을 천시해 산업 능력을 저하시킨 점입니다.

넷째, 지나친 복고주의로 미래를 향한 진취성을 약화시킨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의 시대적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늘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유와 부유 등의 비리 및 비행과 함께 조선시대 선비를 흑평하게 하는 발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비문화의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조선왕조는 제국주의 열강에 비해 경제력과 군사력의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끝내는 일제의 침탈로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폭압도 사라지고 근대화의 성과로 물질적 풍요에 더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신가치 재건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선비정신에서 부정적 측면을 청산하고 긍정적 요소를 계승해 선진국에 걸맞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일입니다.

5. 오늘의 선비로서의 우리의 과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비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일의 시급성과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선비로서 사회적 책

무를 다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민간 차원의 단체와 기관이 힘을 합쳐 그러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 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각 개인의 修身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선비로서 옛날의 선비들이 먼저 자기를 닦고 술선수범하면서 주위를 교화시켜 나갔던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滴水成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부터 주변의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선비들의 삶과 뜻을 기록한 책을 읽고 배우고 그러한 뜻을 오늘에 실천하려는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배울 수도 있고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인성교육에 참여하고 선비문화 수련원에서 선비체험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하는 일에 더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고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점차 동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의 일은 齊家입니다. 바람직한 인간의 도리와 인간관계에 관해서 가족과 더 많이 대화해야 하고, 자녀들의 인성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친회와 향우회 등에 아들과 손자도 데려가서 전통과 뿌리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친지, 이웃으로 우리의 노력을 넓혀 나가고, 교사라면 학생 교육에도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 산업에도 인격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주변에서부터 선비

정신이 되살아나서 점차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선비정신의 실천과 관련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제가의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나 지역사회 중심의 개별적인 실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산발적인 노력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수행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되고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질 것입니다. 선비정신을 연구하고 보급할 전문 기관의 필요성은 여기서 생겨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의와 효용성에 대한 공감의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기구 설립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남에서 도산서원이 선비문화수련원 운영을 통해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듯, 이곳 필암서원에서도 선비학당을 열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퇴계와 하서선생은 두 분의 만남을 계기로 큰 학자이자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시대의 선비로서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했으며, 퇴계와 고봉 선생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열린 자세로 성리설에 관한 논쟁을 통해 한국 성리학의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불후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분들의 길을 따라갈 것을 제안합니다. 도산서원과 필암서원이 뜻을 같이하고 격려하는 동지로서 선비정신의 복원과 보급에 관한 지혜를 나누면서 우리사회를 맑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정기총회 개최

임원 전원 유임. 예·결산안 통과

본회 2009년도 정기총회가 12월 23일 10시 30분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박래호 총무사회로 개최되었다.

국민의례, 문묘向拜, 朱子의 白鹿洞學規를 낭독하고 회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눈 후 吳仁均 회장을 대리하여 申斗千 부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동강 유한상고문의 격려사, 朴泰根광주향교 전교의 축사, 본손대표 金鎭雄 도유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준영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재정 보고를 받고, 2010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원택 임시회장(전남 향교 재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임원개선에서는 오인균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모두 유임하고, 부회장 추가 선임 및 다른 임원 개선은 오인균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어서 행해진 25차 강연회에서는 李準泳 감사가 <禮記 儒行篇>을 낭독하고 강의하였다. 선비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에 대하여 孔子가 최초로 말씀하신 儒行篇을 되짚어 봄으로써 선비정신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다. 朴泰根 광주향교 전교, 성균관 유도회 전남도본부 申斗千 회장이 축하화환을 보내 주었다.

필암서원 集成館 준공식 거행

필암서원 정화사업완료

필암서원의 오랜 숙원이던 集成館(교육관)이 지난 3월 31일 준공식을 가졌다. 유물전시관에

이어 교육관이 완공됨으로써 10여년에 걸친 필암서원 정화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날 준공식은 李清 장성군수, 李洛淵 국회의원, 김상복 군의회 의장, 송준빈 남간사 도유사를 비롯하여 이 고장 유림들과 울산 김씨 종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지방선거 관계로 간소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준공식은 문화관광 과장의 건립경과보고에 이어 이청 장성군수의 기념사, 이낙연 국회의원, 유림대표의 축사, 군의회의장 축사, 울김 김달수 대종회장의 인사말과 장성군에 대한 감사패 증정, 준공테이프 커팅, 집성관 시설 관람 순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필암서원 교육관인 集成館이 준공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 교육, 유림들의 각종 수련회, 전통문화 연수교육, 유학 및 한문학자들의 학술행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집성관은 필암서원 내 교육공간인 進德齋와 崇義齋가 비좁고 낡아 서원 서남쪽에 2008년 5월부터 총 사업비 42억원을 들여 2년만에 준공되었다. 연면적 1986㎡로 지하 1층, 지상 한옥 양식으로 지어졌다. 지하에는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체력 단련실,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고, 1층에는 1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회의실, 다도실, 예절교실, 서예실, 교육실과 숙소와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으로 필암서원은 호남정 신문화의 메카로서 선비의 고장 장성의 위상을 드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이날 준공된 집성관에서 청소년과

전국유림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과 한문 및 유교 교육, 선비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河西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집성관 준공이 “문불여장성”의 명예를 되찾고 21세기 한국유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암서원을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에 걸맞게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성역화 사업을 실시,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왔다. 필암서원 건물 17동에 대한 보수작업을 시작으로 주차공간 마련, 전통공원 조성, 유물전시관 건립에 이어 이날 마지막으로 집성관이 준공된 것이다.

년도별 사업내용을 보면 2000~2001년 토지매입(12,949평), 건물 17동 보수, 유물전시관 건립, 2004~5년 부지성토, 진입로 개설, 2005~6년 전통조경, 연지·정자 건립, 2006~10년 유물전시관 증축, 집성관 건립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 서원 본래의 교육기능을 살려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조선폰에서 하서 탄신 500주년 축하연 22명의 학자 발표듣고 국악감상하며 만찬

河西선생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여 하서학술재단에서는 6월 24일 조선폰 1층 그랜드 볼룸에서 하서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과 하서를 존중하는 유림들, 그리고 문중 종친 250명을

초청하여 작은 축하연회를 가졌다.

김재익 삼양사 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회에서 소천하신 감상홍전 이사장을 이어 새로 취임한 김상하 하서학술재단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상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학자이신 하서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여 학술연구지 4집을 내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하서선생을 존중하는 유림과 문중 종친들을 모시고 이 같이 조출한 소연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만찬을 즐기면서 윤사순교수(고려대)를 비롯한 11명의 강연을 들었다. 이어서 열린 국악 한마당에서는 권호윤씨의 대금독주, 전현준씨의 거문고 산조 연주를 듣고 하서선생이 지은 자연가, 임형수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시조를 박희연씨의 시조창으로 들었다.

이어서 申炳周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강연을 들었다. 특히 맨 마지막에 경희대 김진영교수와 숙명여대 정병헌 교수가 판소리를 함께 열창하여 연회를 흥겹게 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 4집, 윤사순 교수의 「조선도덕의 성찰」, 국어국문학회에서 편찬한 「한국 한시감상」을 드렸다.

5월 5일 임원회의에서 임원 개선 및 하계 강연회 논의하다.

지난 5월 5일 12시 예원 식당에서 오인균회장

을 비롯하여 김용숙 상임고문, 신두천, 장원석, 김재수 부회장과 박래호 총무, 양희택 재무, 김장수 위원, 이충원 총무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상반기 임원회의가 열렸다.

오인균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수 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안건을 심의하였다.

2009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연임된 이외의 임원개선을 오인균회장에게 일임함에 따라 오인균회장은 본회 고문 가운데 年老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金老洙, 閔祐植 고문을 퇴임시키고, 柳承國, 필암서원장, 金相廈 삼양사 회장, 李汶行 함평 전교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또 蔚金大宗會長과 文正公 도유사를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공석인 서울 부회장에 尹絳淳 박사를, 학술연구 부회장에 吳鐘逸 박사를 추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건강이 악화된 李炳玟 문예책임연수위원을 퇴임시키기로 했다.

금년 하계 강연회는 7월 7일에 필암서원 集成館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초청연사로는 「진라도 사람들」을 쓴 金正洙 전 교장과 陶山書院 선비수련원 理事長 金丙日 前長官으로 선정하였다.

필암서원 교육관인 집성관이 준공됨에 따라 선비학당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月峰書院의 〈21세기 어린이 선비교실〉, 安東의 선비문화수련원의 선비 교육을 참고하여 필암서원 선비학당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래호 총무는 안동의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이사장이 30여명의 회원과 함

께 필암서원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선비의 나라로 만들자면서 도산서원, 덕천서원, 필암서원, 한국고전번역원이 협의하여 교육교재를 개발하기로 하고 문광부에 지원신청하였다고 말했다.

김용숙 상임고문도 안동선비문화수련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산양회원 확보 문제, 산양회보 15집 편집안을 논의 결정하였다.

임원개선

면 고문 - 金老洙, 閔祐植

면 문예연구위원 - 李炳玟

신임고문 및 부회장

柳承國 - 필암서원장

金相廈 - 삼양사 회장

李汶行 - 함평향교 전교

金達洙 - 대중회장

金鎭雄 - 文正公 도유사

尹絳淳 - 서울지역 부회장

오종일박사 - 학술연구부회장

필암서원 春享祭, 奉行

초헌관에 金東炫 栗谷사상 연구원 이사장

河西 김인후선생을 추모하는 필암서원 春享이 지난 3월 28일(음 2월 13일 中丁)에 李清 장성군수, 李洛淵국회의원, 이고장 유림과 산양회원, 장성군민과 울김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金東炫 栗谷사상연구원 이사장이 초헌을 하였으며, 全北 유림 金在重원로가 아헌을 성균관 중앙유도회 申斗千 전남본부회장이 종헌을 하였다. 진설에는 鄭殷澤(昌平향교)원로, 집례에는 金京洙(충청북도 유림)원로, 大祝에는 琴鏞斗(부산유림)원로가 맡아 수고하였다.

제향후 김동현 울곡사상 연구원 이사장은 「河西 김인후 선생의 도학과 절의」에 대해 강론했다. 김이사장은 河西선생 춘향에 초헌관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만세손손 유림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30년간 울곡사상을 연구하면서 울곡의 무궁무진한 사상과 동국 18현을 접하게 되었다. 동국 18현의 사상을 5년간 집필하여 보급했다. 儒學의 진로와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공명정대한 태도로 도학의 진수를 전한 河西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크게 선양해서 우리 사회에 큰 햇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결론지었다.

하서로 표지석 제막식

2월 20일 14시 운암동 문예회관 사거리

〈하서로〉를 광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하서로〉 표지석 제막식이 울산김씨 문중과 광주의 유림들, 북구청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0일 14시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거행되었다.

김인수 전 광주종친회장의 〈하서로〉지정 고시에 대한 경과 보고에 이어 탄신 5백주년에 河西路가 지정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金宅

洙 추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영원히 후세에 귀감이 될 하서로” 지정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송광운 북구청장의 축사와 ‘호남유림과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일깨운 쾌거’라는 朴泰根 광주향교 전교의 축사에 이어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한 金達洙 울산김씨 대종회장 감사의 말이 있었다.

하서로 구간은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전남 담양군 경계인 북구 태령동까지 11.4km. 2012년 도로명 주소 법적전환을 앞두고 도로에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8년 8월 기존 박물관로, 지산로, 태령로를 통합해 하서로로 바꾸는 도로명 변경 신청서를 광주 북구에 냈다. 하서로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공고와 중앙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의결로 2009년 7월에 고시되었다.

朴錫武원장 「조선의 의인들」 발간

河西 선생에 대한 글 답아

한국 고전번역원 박석무원장이 집필한 「조선의 의인들 -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을 가다」(한길사 발행)에 〈패악한 정치판에 몸 담을 수 없다 - 자연에 숨은 도학자 하서 김인후〉라는 글이 실려 있다. 경향신문에 연재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를 더하여 출판했다. 금남 최부, 퇴계 이황, 하서 김인후, 사암 박순, 울곡 이이, 서애 유성룡 등 24분을 골라 책으로 내었다. 하서선생의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쓴 글이어서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된다.

◆ 산양회원 동정 ◆

본회 김양수 회원

장성군수 당선 7월 1일 취임

● 본회 회원인 金兩洙회원이 6·2 지방선거에 장성군수에 출마하여 702표차로 당선되었다. 7월 1일에 취임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였다. 겸손하고 따뜻한 군수로서 군민을 위해 군정을 바르게 펼 것으로 기대된다.

● 본회 閔祐植고문이 노환으로 소천하셔서 산양회원들이 조문하고 애도하였다.

● 본회 박래호 총무가 4월 23일 경기도 안성의 韓國書堂 文化協會가 주최한 전국 한시백일장에 서울 曹校煥 부산 금융두 씨와 함께 고선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본회 박래호 총무는 퇴계학 연구회가 주관한 선비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유교문화체험연수교재 및 콘텐츠 개발 제 3차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 李龍兪이사장, 陶山書院 선비수련원 金丙日이사장, 德川書院 李成茂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 朴錫武원장, 心山 金昌淑선생 기념사업회 金暢고문이 참여하여 논의하였다.

선비학당 서우회 孔廟 봉심

본 서원 선비학당(학장 박래호)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법령에 의해 4월 1일부터 정강에 들어갔다.

12일 본학당 내 서우회 회원 및 문화원 몇분과 儒敎의 發源地를 찾아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을 출발 청도에 도착, 다음날 산동성 孔子종택을 방문 雨中에 孔林사이길을 걸어 孔墓에 도착하여 천명주를 비롯 제물 약간을 진설하고 양희택은 초헌관을 하고 박래호는 告由文을 읽었다.

14일 孟廟에 도착 주효를 갖추고 김영풍 문화원장은 초헌하고 박래호는 告由文을 읽었으며 이어 姜太公廟를 찾아 봉심을 하였다.

15일 태산에 올라 중국천지를 바라보았으며 황하유역 발원지를 둘러보고 귀국길에 올랐다.



필암서원 산양회 결산보고

2008年 12.01 ~ 2009年 11.30

수 입		지 출	
내 력	금 액	내 력	금 액
회비수입	3,640,000원	행사프랑카드제작	280,000원
입회비(15명)	510,000원	인쇄비 및 사무비	337,530원
특별성금	1,640,000원	교육비	1,474,000원
광고수입	2,000,000원	회보발행비	2,889,000원
이자수입	725,193원	정기총회 식대	648,500원
문예진흥기금	2,000,000원	임원회의 식대	208,000원
		업무추진비	1,032,100원
		필암서원 춘추제수대	400,000원
소 계	10,515,193원	국제학술발표회 후원금	200,000원
전년도이월금	18,992,847원	행사 및 회보 발송비	498,230원
계	29,508,040원	계	7,967,360원

수 입 총 액 | 29,508,040원

지 출 총 액 | 7,967,360원

잔 액 | 21,540,680원 (정기 예탁금 - 16,000,000원 | 보통 예탁금 - 5,540,680원)

통장계좌번호 | 장성군지부 302-0137-2969-31 김재수

작 성 자 | 필암서원 산양회 재무 양 희 택

위 결산서를 감사하고 상위 없음을 보고 합니다.

2009.12.23

감사 李準泳
金柄郁



2010년 도 사업 계획

1. 목적 및 방침

-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고 아울러 지속적 선양을 도모한다.
- 필암서원교육관을 성학의 수련장으로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
- 하서선생의 도학 절의 문장 연구회 발족 추진
- 회원의 영입 : 회원간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의 능률성을 증대한다.
- 역내 교육기관 학술단체 유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다.

2. 조직운영방향

-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학술강연회를 연 4회
(춘·추향제 7월 12월 정기 및 임시총회) 실시한다.
- 필암서원 춘 추향 봉향시 전원 참여한다.
- 본회 활동사항 홍보를 위한 신앙회 회보를 발행 보급한다.
- 하서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 후원
- 하서 선생 유시 유문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추록하고 관리한다.
- 하서 전집의 정본 확정작업을 추진한다.
-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사문을 대상으로 신규 영입을 적극 추진한다.
- 하서선생의 유적을 발굴하고 회원들의 답사를 통하여 학문과 사상의 터득을 도모케 한다.
- 유관기관 연락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향교 서원 유림단체 지자체 하서학술재단 문정공 친목회 등
-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자립가금에 기여한다.

入會를 환영합니다

장성	金載孝	40,000원
서울	金東炫	40,000원
담양	鄭陽澤	50,000원
인천	金鋒坤	30,000원
고창	金吉中	50,000원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姓 名	金 額
장성 朴來縞 총무	100,000원
서울 金東炫	140,000원
전남도청문예기금	2,000,000원
(주) 삼양사	2,000,000원

2010年 3.28(陰曆 2.13)

筆巖書院 春享祭 獻誠金 內譯

收 入		
순번	內 譯	金額(원)
1	金鎭雄(都有司)	100,000
2	山仰會	200,000
3	李帝瑩(長城山林組合長)	50,000
4	李權翰	30,000
5	김문수(MS토피아소장)	100,000
6	林魯德(담양군대전면병풍리78)	50,000
7	安平君(全南장성교육장)	50,000
8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유성구)	500,000
9	유해근(경남마산산훈동)	50,000
10	永歸書院	100,000
11	金盛洙(本孫)	30,000
12	金泳豐(本孫)	30,000
13	車庄坤(長城畜産協同組合長)	50,000
14	김용대(蔚金光州宗親會長)	50,000
15	홍범희(長城郡 黃龍面長)	50,000
16	金昌洙(蔚金莊山宗中都有司)	50,000
17	양중호	30,000
18	鳳巖書院	50,000
19	金宅洙(前蔚金都有司)	50,000
20	고암중중	225,000
21	김용하(本孫)	50,000
22	김행훈(황룡면)	50,000
23	김상훈(장성읍 부강2차A506호)	100,000
24	金官中(文正親睦會長)	100,000
25	축화환(광주향교 전교등 5개소)	5개
합 계		2,145,000

- 알 림 -

본 회 제 25차 하계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7월 7일(수요일) 10 : 30
- 장 소 : 필암서원 集成館
- 주 제 :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 김병일 원장
(한국국학진흥원장 ·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 이사장)
河西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전교장 (전라도 사람들 6권 집필)

2. 원고 모집안내

- ①河西 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河西 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 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농협 302-0137-2969-31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재수)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302-0137-2969-31)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6712-8881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인종승화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의 천명사상” 의 주제 아래 尹絳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1호)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 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吾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2호)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 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대 교수가 강연함.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晉吾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 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종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 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 보는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윤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의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 (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